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8월 7일(목) 제 3145호

# 전북도, 글로컬대학 본지정 '총력전'

### 전주대서 글로컬모델 시연회
### 전주대·호원대 연합모델 공개
### 대학·기업·지자체 협약 체결
### 교육부 본지정 내달 중 발표

**K-Life 캠퍼스, 전북서 뜬다** 6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린 전주대·호원대 글로컬대학 본지정 추진 도-기업-대학 협약체결 및 글로컬모델 시연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진배 전주대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 기업, 정치권이 전주대, 호원대의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6일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대학 총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컬 모델 시연회가 개최됐다.

이번 시연회는 전주대-호원대(연합형) 글로컬대학의 비전을 공유하는한편 본지정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대, 호원대 글로컬대학 연합형 모델 소개와 함께 K-콘텐츠 분야의 핵심인 K-POP, 뮤지컬, 태권도 공연이 선보였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백향과 음료, 완주 곶감단자, 김제쌀 증편샌드 등 K-푸드 분야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시연과 시식회도 열렸다.

행사에서는 전주대-호원대(연합형)의 본지정 확정을 위해 도내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상호 업무협약식도 개최됐다.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K-Life 4대 특화분야 연계 공동사업 기획 ▲교육과정 공동운영 ▲전문인력 양성 협력 ▲공동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전주대학교·호원대학교는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K-Culture Gateway, K-Life Campus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K-푸드, K-콘텐츠, K-웰니스, K-테크 등 4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의 식품·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된 연합형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전주대-호원대 연합 글로컬대학은 이달 11일까지 교육부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지정 평가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에 대해 "전주대, 호원대의 K-Life STARdium 캠퍼스는 전북의 문화, 식품, 뷰티, 첨단산업과 연결된 핵심 전략으로, 전북이 K-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李대통령 "이춘석 엄정 수사하라"

###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춘석 탈당했으나 제명 추진"
### 국정위 경제2분과장도 해촉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본 회의 중 주식 차명거래'와 관련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라고 지시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에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이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이 AI와 관련된 내부 정부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보좌관 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날밤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도 사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와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의 기강을 확실히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정하게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 개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 체류 상담·생활정착 지원 거점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4월 재외동포청이 주관한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에 전북도가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센터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운영을 맡았으며, 전주상공회의소 6층에 위치한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에 재외동포 전용 상담실을 마련하여, 체류 상담과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된다.

센터에서는 도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법률 노무 행정 등의 전문가 무료 상담 ▲통번역 서비스 ▲부동산 행정 등 생활 기반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북의 역사와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탐방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약 4,000명에 달하며,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정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류 자격 변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과 재외동포 간의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재외동포들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조국혁신당 "이춘석, 무소속 잔류는 책임 회피"

### 이춘석에 의원직 사퇴 촉구
### "전북 정치에 걸림돌"
### "뱃지 단 수사 방패 안 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이춘석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중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았고 장관 등 정부 요직에 전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오랜 소외를 벗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움텄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믿었던 도끼가 발등을 찍어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됐고, AI 관련주 등 약 1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적 분노에 밀려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탈당했지만,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고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내렸지만, 진정한 책임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데 있다"며 "무소속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으며 뱃지는 달고 있지만, 전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의원직이 전북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수사의 방패막이로 쓰일 것이라는 점인데 지금 전북 정치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으며 이춘석 의원은 스스로 내려야 전북 정치가 다시 앞으로 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정치는 책임이며, 신뢰로 존재하는만큼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과 기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전북을 위한 마지막 도리다"고 호소했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전북, 비수도권 최초 IOC인증 올림픽데이런 개최

### 道-전주시-대한체육회 협약
### 11월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열려
### 전주 올림픽 유치 열기 확산

전북에서 비수도권 최초로 '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이 열려 관심을 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도청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지금까지 이 대회는 서울에서만 4차례 진행됐다.

올림픽데이런은 IOC 창설일(1894년 6월 23일) 기념 '올림픽데이'에 맞아 올림픽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이번 전북 개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한체육회는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회는 오는 11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선착순 6천 명 규모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러너블(RUNABLE)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코스는 5K와 10K 두 종류로 구성된다.

행사 당일에는 스포츠 스타 팬사인회,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주 올림픽 유치 응원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팀코리아 타월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데이런 기념 키트가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도청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의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김관영 지사는 "IOC의 공식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올림픽 행사를 우리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의 인지도와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자치도, 'AI 전주올림픽' 밑그림 그리다

### 올림픽 추진 AI·학술 분과회의
### 산학연 전문가 21명 참여
### 스마트 올림픽 기술 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AI학술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3일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첫 분과회의로, 전주 하계올림픽을 미래형 혁신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과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대, 군산대, 전주대 등 도내 주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및 교수진과 AI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장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활용된 AI 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 과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경기 운영, 안전, 교통, 보안 시스템 등 실질적인 적용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전주 하계올림픽이 '스마트 올림픽'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기술 컨소시엄 구성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이 제안됐다.

전북도 서배원 과장은 "AI 학술 분과회의를 통해 도내 우수 인재와 첨단기술 역량을 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연구협력을 통해 전주가 세계적인 미래형 혁신올림픽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체육, 언론홍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과별 회의를 통해 올림픽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한편 도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박희승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 옥내 확성장치 선거일 제외
### 상시 허용…소음 기준 마련
###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박희승 의원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미술품 대여전시' 단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2025 미술품 대여전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시각예술단체를 1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술작품을 공공기관 및 기업 공간에 전시해 도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작품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총 5개 단체 선정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각예술 민간단체이며, 대표자·기획자·참여 작가 모두 전북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시는 9~12월 중 2개월 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 훼손 등에 대비해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김은지 기자

# 전북 외국인근로자센터, 상생 우수사례 공모

### 고용주·외국인근로자 대상
### 우수 동반성장 발굴 전파
### 최우수 전북기업 커피차 지원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전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전북 사례 공모전을 주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일꾼이 아닌 '동반자'로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한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내,외국인 차별없이 일하고 싶은 전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사례는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서 주최하는 MY전북세계인축제를 통해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에게 진흥원장 명의의 격려패가 수여된다. 최우수 수상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에게는 임직원 격려 커피차(100만원 상당)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출품 분야는 '기업 도민 부문'과 '외국인 근로자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업 도민 부문' 출품 대상은 외국인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전북 소재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 내 긍정적 효과 사례, ▲내국인과 차별없는 복지 제도 운영사례, ▲외국인근로자와의 감동적 사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부문'은 현재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근로 중인 외국인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전북 취업 후 자격증, 한국어 성적 취득 등 정착을 위해 노력한 사례, ▲한국인 동료 또는 사업주와의 감동적 사례, ▲낯선 문화와 환경을 극복하고 동료 외국인에게 도움을 준 사례, ▲도내 외국인근로자에게 모범이 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난 2023년도부터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들의 성공 정착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은 도민과 외국인근로자의 땀과 열정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내,외국인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없이 일하는 전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국힘 우재준 "이춘석 국회 제명안 발의"

### "민주당, 위장제명 말고
### 의원직 제명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재준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중에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이춘석 의원의 제명안을 발의하겠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며 "즉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다.

우 의원이 이 의원의 제명을 주장한 배경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등으로 취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해 사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동의한다면 당직만 잠시 박탈하는 위장 제명 같은 것 시키지 말고 의원직 제명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우재준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사태야말로 의원 차명재산 전수 조사하고 특검할 사안이다. 차명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 개미투자자 등쳐먹는 파렴치범죄"라면서 "위장 탈당쇼로 부족하다.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주시, '2025 전주가맥축제' 개최

## 7일~9일 전주대 대운동장 드론쇼·문화예술가수 공연

전주시 여름대표축제 '2025 전주가맥축제'가 시작됐다.

'2025 전주가맥축제'는 전주가맥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일)가 주관하며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 '전주가맥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하이트진로, 지역 가맥업체들이 함께 만들어 이어오는 전주 대표 여름축제다.

올해 축제는 기존 행사장으로 사용됐던 전주종합경기장 공사에 의해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축제시작 7일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인기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이어 개막식에는 화려한 드론쇼가 축제장을 장식한다.

이어 8일에는 DJ 클럽파티가 진행되며 9일에는 불꽃놀이와 모창가수가 출연하는 '히드콘서트'가 펼쳐진다.

또 행사 중 펼쳐지는 가맥지기 플래시몹과 댄스타임, 관객참여 이벤트 등 방문객들에게 웃음과 볼거리를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특히 올해 가맥축제에서는 특별한 이벤트 성인인증 후 받은 팔찌를 차고 효자동 일부 상권 업소(가맥축제장 내 별도 공지)를 방문하면 뽑기이벤트와 가격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전주대학교 대운동장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산경찰서와 완산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무대 및 객석 등 임시 시설물 안전성 △전기·가스 설비 과부하 및 누전·누출 위험 △소화기 비치 및 비상 대피 동선 확보 여부 △관람객 밀집 질서유지 및 교통 대책 △폭염 대비 쉼터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성일 전주가맥축제 추진위원장은 "전주가맥축제는 민간주도형 대표 축제로서 전주의 대표 문화축제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새만금청·군산대·프리바, 친환경 새만금 개발 협약

## 재생에너지·식품 생태계 조성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국립군산대학교-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은 6일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른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 논의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점검회의 날로 명시해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졌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제3회 ASK 2050 새만금 정책 포럼에서 프리바 대표 메이니 프린스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재생에너지, 수처리·인공지능(AI) 첨단 기술, 건강한 음식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는 이러한 대안도 적용할 수 없다"며 "지역 청년들이 함께 꿈꾸고 참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이 중요한데, 새만금은 계획도시이기에 이러한 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 곳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글로벌 기업, 지역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실현, 친환경 개발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발효식품산업 협력 강화

##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센터와 발효 기술 공동연구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6일 (재)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발효식품산업 연계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전주시 출연기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연구원장 김상남)은 6일 (재)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센터장 김광현)와 발효식품산업 연계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발효산업 관련 산·학·연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업 △발효식품 관련 기술 분야 공동연구 확대 △기관별 보유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공동 발전에 대한 긴밀한 협조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재)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 '매실·배·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 소재를 활용한 우수 발효식품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같이 우수 미생물 균주들을 분리 동정 및 분양 공급을 통해 발효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및 기능성식품 개발 촉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원장은 "그린바이오 기술로서 발효식품개발 연구를 통해 전주 농산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전통놀이-관광' 협력안 모색

## 제기차기 채규칠 명인과 한옥마을 관광 홍보 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는 지난 5일 남관우 의장은 전주한옥마을 '제기차기 할아버지' 채규칠(77) 명인과 전통놀이 보존과 전통문화 관광 활성화 간담회를 갖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관우 의장과 채 명인은 전통놀이 문화적 가치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전주한옥마을 홍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채 명인은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에서 하루에 제기를 수 천 번 차며 전통놀이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채규칠 명인은 "우리 전통놀이를 알리고 지역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채규칠 명인은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통놀이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매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도입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신형 특수구급차를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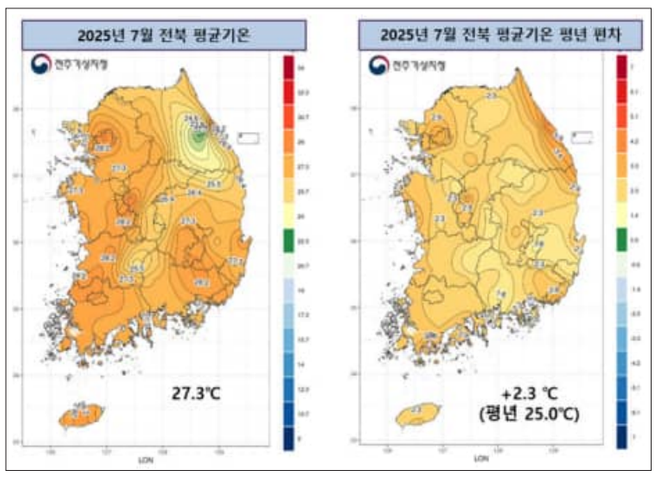
최신형 특수구급차는 기동성과 안정성이 저하된 기존 차량에서 보다 향상된 성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춰져 있다.

특수구급차 차량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스마트 전자차트, 고효율 산소공급장비 등 응급환자 이송과 현장 처치 위한 최신 의료 장비가 탑재돼 있어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구급차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심정지 및 외상 등 중증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규 서장은 "서신119안전센터는 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해 출동 수요가 높은 핵심 관할구역"이라며 "신형 구급차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기상지청, 2025년 7월 기후 분석 결과

## 한 달 절반 이상 동안 폭염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언성)은 2025년 7월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북 평균기온은 27.3℃로 역대 세 번째 (1위) 1994년 27.8℃, (2위) 1978년 27.5℃, (3위) 2025년 27.3℃로 높았고, 평년보다 2.3℃, 작년보다는 1.7℃ 높았다.

7월 상순의 전북 평균기온은 28.3℃로 평년보다 4.5℃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하순의 전북 평균기온은 28.5℃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태풍(제7호'프란시스코', 제8호 '꼬마이')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남동풍을 따라 전북으로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더욱 상승했다.

전주의 경우, 7월 27일 최고기온 38.3℃로 월 최고기온 2위를 경신했으며, 밤에도 열대야가 7월 25일부터 6일간 지속되며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졌다.

7월 전북 폭염일수는 18.1일로 평년(4.4일)보다 13.7일 많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10개 지점에서는 한 달의 절반 이상 동안 폭염이 발생했다.

열대야일수는 6.9일로 평년(3.0일)보다 3.9일 많아 역대 5위를 기록하고, 전북에서 가장 열대야일수가 많았던 지역은 전주(16일)로 역대 2위(1위: 2013년, 18일)를 기록했다.

7월 전북 강수량은 247.3mm로 평년(299.2mm) 대비 82.6%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순(특히 17일과 19일)에 강수가 집중됐다.

중위도 파동 강화로 인한 상층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순의 전북 강수량은 230.3mm로 7월 강수량의 대부분(93.1%)이 내렸다.

16~20일에는 총 8건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극단적 호우(시간당 50mm 이상 강수가 내리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mm이상 내리는 경우, 혹은 시간당 72mm 이상 강수가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 지역에 40dB(조용한 일상 대화 수준)의 알람을 동반한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가 발송되는 등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며 큰 지역 차이를 보였다.

순창은 누적 강수량이 458.3mm로 평년 강수량(44.4mm)의 10배 이상 매우 많은 비가 내렸으며, 임실과 고창에서는 단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려 1시간 최다강수량 7월 극값을 경신했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7월은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가 나타났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례적으로 빨리 시작되고 중순에는 집중호우, 이후 다시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며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여름철, 전주기상지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의료기관·약국' 여름철 휴무 사전 안내 강화

## 응급의료포털, 운영 정보 현행화

전주시 의료기관 휴진 및 약국 휴무일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휴진 시 사전 안내문 내·외부 부착 △통화 연결 시 자동응답 안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운영시간 수정 반영 등 휴진일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E-GEN) 내 병·의원·약국 운영 정보 현행화를 위해 휴진 계획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로 전주시보건소는 총 216건의 휴무일 변경 내용을 추가 접수 받아 응급의료포털에 반영했다.

전주시보건소의 휴무 사전 안내 강화는 여름 휴가철 의료기관 운영시간 변동에 의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 휴진일을 확인해 응급의료포털에 즉각 현행화하는 등 시민 불편 및 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김호은 환경청장, 폭염 속 녹조 발생 대비 현장점검

## 정읍 산성정수장 방문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6일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한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와 비상 대응체계를 직접 살폈다.

이날 김 청장은 전북 정읍시 소재한 산성정수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 했다.

산성정수장은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시설로 정읍시와 김제시 2개 지역에 하루 평균 46천톤 이상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대비해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 공정의 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김호은 청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해 녹조 발생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수단계에서 녹조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정수장 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대한건설協 전북도회 "중대재해 제로 만들겠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제2차 긴급 대책 회의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6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2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 회의는 대표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속에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 이에 대한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 및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재철 회장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는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 운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제로(0)'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 회장단 긴급회의 내용과 함께, 도회 회장단을 통해 1차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응 방안도 공유됐다.

특히, 소재철 회장은 건설업체 중대재해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회원사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6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제2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회원사의 현장 안전관리 이해를 돕기 위해 전주 지역 건설안전보건협의체 회장이며 7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주)신성건설 서진석 안전팀장의 현장 안전관리 중점 점검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협회는 이번 2차 회의를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실무적 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 통신비·차량 연료비 추가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가능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 국산 로봇착유기 '데어리봇' 세계 시장 진출

### 농진청-(주)다운 공동 개발 대만에 7대 수출

국산 로봇착유기가 아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기업 ㈜다운과 공동 개발한 '데어리봇(Dairy Bot)' 7대를 대만에 수출하며 아시아 낙농 시장 본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수출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홍보, 제품 실증 등 다각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낙농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은 결과다.

특히 대만 낙농기자재 유통업체가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품 성능과 데이터 처리 체계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운영 안정성과 기능 유연성, 가격 경쟁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양측은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지난해 체결했다.

대만은 농가당 사육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로봇착유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도입에 관심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동시간을 약 40% 단축할 수 있는 국산 로봇착유기의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은 현지 유통사와 낙농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과 ㈜다운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형 로봇착유기를 개발했다. 두 차례 상용화 실패를 겪은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했다. 이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사업 등을 통해 꾸준히 보급, 전국 13개 농가에서 총 15대가 운영 중이다.

외국산 대비 약 60% 수준의 가격과 우유 생산량, 유성분, 사료 섭취량, 체중 등 국내 젖소 생체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으로 실용성과 정책 연계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로봇팔 성능을 개선해 착유 시간을 기존 자사 제품 대비 13.8% 단축했고, 실시간 유두 스캔 기술로 탐지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유두(4개) 개별 착유 기능을 통해 일부 유두에 이상이 생겨도 나머지 우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운 최영경 대표는"국내외에서 데어리봇 성능을 입증해 나가며, 후속 수출 확대와 함께 국제 스마트 축산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이번 수출은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국제적 신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농촌진흥청, APEC 디지털 농업기술 공유

### 아태지역 국가 협력 농업인 역량 강화 기반 마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 식량안보주간에 디지털 농업기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기술협력위원회(ATCWG) 공동 연수(워크숍)가 열렸다.

ATCWG(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Working Group, 농업기술협력실무작업반)이란 농업 및 관련 산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업, 생명공학, 동식물 및 생물유전자원 관리 분야 정보,경험을 공유를 목표로 1996년 설립된 식량안보 장관산하 회의체이다.

농촌진흥청은 8월 5일~6일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디지털 농업기술의 우수 적용 사례 공유와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양일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농업기술협력위원회 대표단과 학계, 산업계 등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5일 학술 대회(컨퍼런스)에 이어 6일에는 현장 견학 및 종합 토론 등이 개최됐다.

5일 학술대회는 3개 분과로 나눠 △기후변화 대응 강화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및 적용 사례 △식량안보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 및 적용 사례 △디지털 농업기술의 한계 및 도전 과제를 주제로 한국, 일본, 호주, 중국 등 회원국 발표가 있었다.

6일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업기술 발전사를 체험하고, 미래 식량주권 및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 보존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중부지소를 견학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 시간에는 아태지역 디지털 농업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 구축과 교류의 장(場)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공동 연수에서 디지털 농업기술이 식량안보주간 주제인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를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인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과 다양한 연구개발(R&D)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디지털 농업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전기안전공사 'KESCO 썸머페스타' 만족도 우수

### 2,300여명 방문 내년 방학기간 맞춰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O 썸머페스타' 물놀이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획득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9~31일까지 전북 완주군 본사 앞마당에서 진행한 썸머페스타 만족도 설문조사결과에서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KESCO 썸머페스타'에 총 2300여명이 방문했으며, 방문객 중 22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축제 분야(물놀이)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228명 중 212명이 '매우 만족'(5점)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공사는 2026년도 행사에 가족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추가 운영 등을 논의 중이다.

"행사 전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205명이 '매우 만족'으로 답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역주민 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5년째 지역주민 위한 썸머페스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방학 기간에 행사를 열어 지난해(1500명) 보다 많은 약 2300여명 방문객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올해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중 림보게임, 수박 빨리먹기 등 게임들이 큰 인기를 얻어 것으로 파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내년에도 지역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춰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방안을 논의하며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물총 사용 자제 등 행사장 내 안전규칙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내용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기원, 양잠산업 부가가치 향상 도모

### 농업인 실무 중심 교육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과 양잠산업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8월 6일 도내 양잠농업인을 대상으로 '양잠 농업인 기술교육 및 누에사육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양잠농가 50여명이 참석해, 누에의 반려동물 사료 이용 등 다목적 활용 사례와 신시장 진출, 농가 신소득 창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질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이농장 이주한 대표의 양잠산물 신시장 진출과 현장 적용 사례 특강과 반려동물 시장 동향, 양잠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농가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 실무 중심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가을 누에씨 공급 일정과 보급 실적도 공유됐다. 가을에는 도내 32농가에 총 247상자의 누에씨가 공급될 예정이며, 가격은 봄과 동일하게 상자당 25,000원으로 책정돼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성문호 소장은 "이번 교육과 협의회를 통해 양잠농업인들과 함께 양잠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양잠산업이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농협-순정축협, 축산농가 '해피컨설팅'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순정축협(조합장 남상국)은 6일~7일 순창한우명품관과 정읍한우명품관에서 축산농가 250여명을 대상으로 '해피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순정축협 70세이상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술공연 등을 제공해 농업인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해피컨설팅'은 전북농협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맞아 축산인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기획했다.

2025년에는 경영(경제특강), 신바람(마술, 레크레이션), 세무(세무특강)로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는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웃고, 성장하는 전북농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교육청, 고입전형포털 고도화

### 중·고등학교 업무기능 통합 원서제출 오류 해결 시스템 운영 불안정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이하 고입전형포털)이 한층 고도화된다.

전북교육청은 다양해진 고입 전형 업무 지원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맞춰 단계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구축돼 13년간 운영돼온 고입전형포털은 고입 전형이 다양화되고, 장비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업무기능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 업무 경감을 위한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새로워진 기능은 △이원화된 중학교 업무 기능과 고등학교 업무 기능 통합 △학생·학부모가 직접 원서 작성·제출 기능 △자기주도학습전형 정보 제공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교의 입학전형 △평준화고교 선배정대상자 신청·심사·결과 조회 기능 △데이터 기반 시각화를 통한 원서접수 현황 및 통계 자료 제공 △교원·학생·학부모 알림서비스(고입전형 안내/원서접수/합격통보/배정 안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기능 등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업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했던 원서제출의 오류를 해결하고, 노후화된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미래교육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4세대 나이스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신규 구축된 고입전형포털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1일과 26일부터 27일까지 중학교 진학부장과 고등학교 입학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고등학교의 다양화된 입학전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입시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기능들을 통해 교원 업무 경감은 물론 고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음악아카데미 여름캠프' 운영

### 초·중학생 음악적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부터 8일까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예체능관에서 '2025 전북음악아카데미 여름캠프'를 운영한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음악아카데미는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작곡(초등제외) 총 4개 분야에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5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름캠프는 3일간 집중 운영되는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 오페라 만들기, 피아노·관악·현악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해 '미술관 속 챔발로 이야기',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등의 이론 강의도 포함돼 있다.

여름캠프는 마스터클래스와 오케스트라 집중교육, 예술융합 교육 등에 집중해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음악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 안전 최우선"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안전직무연수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안전 최전선에 있는 교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안전 업무 담당 교직원의 실무 역량 강화와 학생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5년 하계 교직원 안전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130여 명이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특히 학기 중 바쁜 업무와 수업 준비로 연수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 학교 안전 업무 담당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오프라인 연수는 6일 익산안전체험교육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들은 생활안전, 재난대응,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 실습형 교육을 받았다.

이후 8일, 11일부터 14일까지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이론연수가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법 △학교안전사고 통계 및 주요 사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이 중심이다.

전북교육청은 이 연수를 통해 학교 안전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 및 학생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안전 문화가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학생들,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GTEP 사업단 소속 임동찬·전승현 학생(경영학과)으로 구성된 팀 '지텝가이즈(GTEP Guys)'가 최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2025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지텝가이즈는 전북 대표로서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 전국 무대에 도전장을 내게 됐다.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7개 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지텝가이즈가 선보인 출품작 '전북수출비서 수출길라잡이(수길이)'는 제품정보 입력만으로 수출 준비 전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플랫폼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실효성과 창업 연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내년 유초등 교사 125명·중등 교사 233명 선발

### 유·초·중등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누리집을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를 실시했다.

2026학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유·초등 분야 125명, 중등 분야 233명, 총 358명이다. 이는 전년도 최종 선발 예정 인원 549명보다 191명이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60명(장애 4명), 초등 58명(장애 5명), 특수유치원 6명(장애 1명), 특수초등 1명 총 125명이다. 전년도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었던 177명보다 52명 감소했다.

중등 교사는 국어 20명·영어 24명·수학 17명·체육 12명·특수(중등) 11명· 보건 11명·영양 10명·사서 3명·전문상담 9명 등 총 29개 과목 233명으로 전년도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었던 372명보다 139명이 감소했다.

보건 교사는 학교급에 따라 유치원(3명), 초등(6명), 중등(2명)으로 구분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학교급별로 배치된다.

사전 예고 인원은 정원 증감 요인과 퇴직 및 휴·복직 등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선발 인원은 향후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초등 및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 계획 공고는 △유·초등은 9월 10일 △중등 은 10월 1일에 각각 발표되며, 원서 접수는 △유·초등 9월 22일~26일 △중등 10월 13일~17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시험은 △유·초등 교사는 11월 8일 △중등 교사는 11월 22일에 각각 실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 호원대-전주대, K-콘텐츠 산업 발전 발판 마련

### MBC플러스·미스틱스토리 미디어스코프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와 전주대는 6일, 10시 MBC플러스, 미스틱스토리, 미디어스코프와 K-콘텐츠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원대학교와-전주대 연합의 글로컬대학 30의 본 지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한민국 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중요한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 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은 전북특별자치도 하계 올림픽 유치의 핵심 가치인 '문화 올림픽'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성 호원대학교 총장은 "K-컬처를 선도하는 세 기관과의 협력은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행보"라며, "연합대학이 전북 청년들에게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무패 행진' 전북현대, 8일 안양과 맞대결

### K리그1 4연승·20경기 무패 역사적 기록 이어가

전북현대가 2주간의 휴식을 끝내고 8일 저녁 7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FRUITS FRIDAY' 테마로 FC 안양과 K리그1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전북현대는 이번 휴식기에 휴가를 통해 여름내 지친 체력을 회복하고 복귀 후에는 주중 경기가 예정된 하반기를 위해 더욱 강한 훈련으로 체력 증진에 중점을 뒀다.

특히 체력훈련을 통해 팀을 더욱 단단히 만든 전북현대는 팀 내 부상자도 제로로 만들어 오는 안양전 승리를 자신한다.

전북현대에 이날 경기의 승리는 승점 3점만큼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전 승리로 K리그1 4연승을 포함해 2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현대는 안양을 상대로 역사적인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전북현대는 이날 경기에서도 승리 시 21경기 무패로 1991년 부산이 세운 기록과 함께 공동 역대 4번째이자 단일 시즌으로는 2번째 최다 무패 기록을 달성한다. 그동안 K리그 연속 무패 기록 1위~3위를 차지하고 있던 전북현대가 4번째 순위에 마저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K리그 최강의 팀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정철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시노다 세츠코 동명 소설 각색 연극 '장녀들' 30일 군산서 막 올려

일본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가 시노다 세츠코의 동명 소설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한 3부작 연극 '장녀들'이 오는 30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막을 올린다.

'장녀들'은 시노다 세츠코가 20년간 치매를 앓은 어머니를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원작의 강렬한 메시지를 연출가 서지혜가 직접 한국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 무대에 올렸다.

총 3부로 진행되는 공연은 1부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관둔 나오미의 사연) 2부 (오지마을에서 현대의학을 거부하는 주민들과 주인공 요리코와의 갈등) 3부(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현실과 역할 갈등을 속 주인공 장녀 게이코의 좌절)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작품료의 90%를 국비 지원받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연극 '장녀들'은 티켓링크에서 전석10,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스마트주차장 가입자 50명 추첨 공영주차장 정기권 제공

익산시가 8월 한 달간 스마트주차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7~8월 스마트주차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 중 50명을 추첨해, 1개월간 공영주차장 10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제공한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1차 이벤트 당첨자는 제외된다.

익산시 스마트주차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과 연계해 구축된 첨단 주차 시스템이며, 지난달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기능으로 △실시간 주차 가능면 확인 △요금 사전결제 및 무정차 출차 △정기권·주차권 구매 △미납요금 간편 납부 △모바일 대리주차 신청 등을 제공한다.

현재 서비스가 적용된 주차장은 영등1·2동 공영주차장, 모현1~4공영주차장, 문화 공영주차장, 역골지구 공영주차장, 송학 공영주차장, 익산역 공영 주차타워 등 10곳이다.

누구나 스마트주차 누리집 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 주차 스트레스 완화와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최준호 기자

## 실감형 콘텐츠 고군산군도 전시 관람 인증 이벤트 진행

군산시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고군산군도 실감미디어 전시회'와 함께, 이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전시회의 작품들은 지난 7월 한국섬진흥원과 전주대 실감미디어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공동 기획 운영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군산시가 연계 진행했던 '섬에서 계절학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전주대·건국대·계원예대·중앙대·계명대·호원대 등 6개 대학의 학생·교수·전문가 11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선유도에 직접 머물면서 실감미디어를 이용해 고군산군도의 자연과 역사를 순수 창작물로 만들어냈다.

참가 방법은 전시를 관람한 관객이 인증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정 해시태그(#고군산군도, #실감미디어아트, #군산여름여행)와 함께 올리면 된다.

또는 군산시 K-관광섬 공식 인스타그램인 '고군산섬잇길'을 팔로우해도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을 증정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는 "이번 이벤트는 관람객들에게 대학생들이 그려낸 고군산군도의 색다른 모습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바이럴 홍보 효과로 고군산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독서가들 성지 '군산북페어' 준비 박차

### 30~31일 개최 팝업서점 등 선봬

작년 첫 개최만으로 '텍스트힙'(Text Hip, 2030세대가 독서를 단순한 정보습득이나 학습이 아닌 멋지고 개성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의 성지가 된 '군산북페어'가 더욱 화려하게 돌아온다.

군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과 '군산북페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작년에 이은 '군산북페어' 열풍을 잇기 위해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도서관과 운영위는 모집 팀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특별한 국내외 출판사와 서점, 작가, 개인제작사, 아티스트 디자이너 등 121개 부스를 선정했으며, 이들은 독자와의 설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전 세계 서점 토트백을 수집해 '가방은 아름답다' 등을 통해 큰 호평을 받은 전시 분야는 올해도 북페어 문화와 북디자인, 독립 출판의 흐름을 반영하는 세 개의 전시로 출판계 최신 문화를 공유한다.

메인 전시인 '아트 북 페어 나우—북페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세계 아트북 페어의 속살을 보여주는 전시로, 독립·예술 출판의 중심인 아트북페어의 미학적 현황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북페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는 전시다.

특히 '군산북페어' 관계자들은 '메인' 전시인 이 전시를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뉴욕아트북페어 등 30여 개 해외 아트북페어 운영자와 인터뷰를 진행해 깊이 있는 시각을 담아냈다.

'군산북페어'의 비밀병기인 특별대담은 작년 한국 문학계의 거장 황석영 작가의 뒤를 이을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소설가 김애란과 평론가 신형철이다. '책을 쓰는 사람'과 '그 책을 비평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이번 대담은 독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대 행사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출판사 문학동네와 협업한 팝업서점 '군산시장(詩場/ Poetic Space)—문학동네×군산북페어"이다.

이는 문학동네가 군산 구도심에 오픈하는 시집 팝업 스토어이다. '문학동네 시인선'은 물론 '문학동네포에지' 시리즈, 시인들의 산문을 비롯해 블라인드북, 시인선 스티커, DIY 키링, 나만의 시집 코너 등이 선보일 계획이다.

모든 독서가들이 두근거리며 기다리는 올여름 최대의 잔치 '군산북페어'는 오는 30일, 31일 양일간 군산시 나운동 군산회관에서 열린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 여름밤, 빛으로 국가유산 물들인다

### 8~30일 미디어아트 펼쳐져

올해 최초로 선정된 군산시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구 군산세관 본관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통해 야간에 국가유산을 더 쉽게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군산의 빛, 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군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할아버지와 손녀 새별의 시간여행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인 '백년의 군산'은 조선은행 창문을 활용해 옛 군산 사람들의 삶을 빛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구 군산세관 본관·구 일본 제18은행·구 조선은행 등 근대 문화유산에서 군산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줄 다채로운 공연과 설치미술, 체험형 콘텐츠 등도 마련됐다.

특히 △신비한 여정 △도깨비 금고 △희망의 창고에서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가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야간에 더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 본격화

### 결혼·임신·출산·보육기능 통합지원 2028년 준공 목표

익산시가 결혼부터 보육까지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익산시는 6일 신동 125-19 일원에서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계 방향과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립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논의를 진행했다.

모아복합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임신·출산·보육 관련 기능을 한데 모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국비 포함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97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내부에는 △휴(休)카페 △육아놀이터 '대디(Daddy)센터' △생애초기 건강관리지원센터 △아이발달지원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난임부부·맘's 클리닉 등을 갖추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설계공모를 공고했으며, 전국에서 총 13개 건축사사무소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설계안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제출받고, 10월 29일 심사를 거쳐 10월 31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을 낸 업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한이 부여되며, 입상작을 제출한 업체에는 설계보상비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8월 착공과 2028년 2월 준공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이평면 폭염 대책 논의

### 이장단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5일 이평면 B식당에서 열린 '이평면 이장단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평면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시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주민과 시를 잇는 이 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폭염과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에 이 시장은 "예산과 법령 범위 내에서 건의 사항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제7기 미래전략자문단 12명 위촉

### 산업·환경 등 전문가들 정책 개발·미래 전략 수집

정읍시가 시정목표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7기 미래전략자문단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미래전략자문단은 산업·환경·문화·농업·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과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미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기술 집약 산업 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미래전략자문단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정읍이 새롭게 번영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익산시가 실전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

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취업을 향한 첫걸음'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취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집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육 과정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1분 자기소개 대본 작성 △조별 발표 연습 △면접 예절 교육 △실전 면접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 참가자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막막했던 취업 준비에 방향이 잡혔다"며 "실제 면접에 가까운 연습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취업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연령 구분 차등 폐지 경제적 부담 완화

정읍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을 폐지했다.

시는 기존 생애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지원금액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와 함께, 비급여 3종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193건이었으며, 이 중 41건이 임신에 성공해 1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가정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물빛축제 먹거리 부스 위생교육

정읍시가 2025 정읍 물빛축제를 앞두고 먹거리 부스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일 보건소 2층 교육실에서 열렸으며, 축제장에서 운영될 한시적 식품위생업소 25개소 영업주가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식품 취급 시 주의사항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가격표 게시와 가격표에 따른 요금 부과를 철저히 이행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물빛축제 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과 부스 내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지도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 판매 부스 4개소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미성년자 주류 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예방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물빛축제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과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고창모양성제’ 부스 운영자 모집

## 먹거리·직거래 장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도모

‘제52회 고창모양성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 29일~11월 2일)’ 기간 운영될 먹거리·간식·직거래장터 부스, 소무대 공연, 체험, 플리마켓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먹거리·간식 부스는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와 이색 간식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직거래장터는 고창 농특산물과 수공예품 등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소무대 공연 부문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축제장 소무대에서 펼쳐지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공연 무대를 구성할 예정이다.

플리마켓은 수공예, 빈티지 아이템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셀러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모양성제는 전통문화유산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다”며 “이번 모집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창만의 개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고창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세계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일회용품 사용 저감 ‘앞장’

## ‘텀블러 기부 캠페인’ 추진

고창군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텀블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새 텀블러 및 보틀을 기부받아 필요한 군민에게 나눠주는 자원순환 실천 운동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과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기부 방법은 포장상태가 보존된 새 제품의 텀블러 또는 보틀을 오는 8월 29일까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기부하면 된다.

고창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범군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일상 속 작은 나눔과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 신풍동 ‘성지로스’ 착한가게 15호점 지정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선 외식업체 ‘성지로스(대표 정정순)’를 착한가게 15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자발적 기부 참여 프로그램으로, 신풍동에 점점 동참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

성지로스 정정순 대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호길 위원장은 “기꺼이 착한가게에 동참해주신 정 대표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많은 착한가게를 발굴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제23회 고창고인돌 마라톤’ 11월 16일 개최

## 건강·단축·하프 3종목

마라톤을 사랑하는 전국 마라토너들의 흥겨운 축제인 ‘제23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 16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매년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는 고창군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다.

종목은 건강코스(5㎞), 단축코스(10㎞), 하프코스(21.0975㎞) 3종목이다.

참가비는 건강코스는 1만원, 단축·하프코스는 3만5000원이며 황토배기 쌀, 복분자주 등 다양한 특산품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고창군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창의 보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함께 달려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초대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보물과 함께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13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부안군은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역특화 분야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줄포면 줄포리 643-3번지 일원(25만900㎡)을 대상으로 하며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줄포워케이션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체류형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재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제 이해↑

## 1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내년 반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5일, 1회차 교육은 김제시민 1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개념과 제안서 작성 방법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안내해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6일 2회차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심화 과정과 제안 사업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이뤄졌다.

김희옥 부시장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해경, 휴가철 연안해역 현장점검

## 해수욕장·비지정해변 등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일 관내 연안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격포, 변산, 고사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비지정 해변(격포 인근 펜션 해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생덕 서장은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활동 실태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현장 안전위해요소 존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또한, 최근 비지정 해변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위험표지 설치 여부, 안전홍보 현수막 게시 상태 등 관리 실태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주말 사이 부안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해안가 침수, 낙석 위험지역 등도 함께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박생덕 서장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은 지정·비지정 해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점검과 예방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생활인구 증대 유도 ‘시티투어’ 성료

## 시티투어-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프로그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 생활인구 증대방안 시책으로 발굴한 ‘김제시티투어-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한 이 프로그램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원 내에 직접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통해 김제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자원을 즐길 수 있는 김제시 시티투어 참가자를 신청받아 연수생들에게 우리 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 2일 처음으로 실시한 시티투어는 세정과에서 주도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김제시민증 및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인구로서 우리 시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혜택을 안내했다.

또한, 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관광지 홍보물 배포 및 지역 특산품 소개를 통해 지역 관광 홍보에도 힘썼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교육·연수를 통해 우리 시를 찾은 연수생들이 생활인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인구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김제 요촌동 지사협-한국전력, 고독사 예방 협약

## ‘1인 가구 안부 살핌’ 운영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만종)가 지난 5일 한국전력 김제지사와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홀몸 어르신 및 중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등의 취약계층 1인 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SMS로 안내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정아 요촌동장을 비롯한 한국전력 전북본부 신진형 김제지사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요촌동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전에서는 전력 및 통신데이터를 수집 연계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월 사용비를 납부한다. 요촌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9월~12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서 동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1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도시재생지원센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수료식 호응

고창군 옛 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해교육 수료식과 시화전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6일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옛도심 조양관카페에서 성인문해교육 수료식과 시화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시화전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6월부터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행사에선 수료증 수여, 주강사 소감 발표 등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 수료생은 “글을 배울 수 있어 하루하루가 행복했다”며 벅찬 소감을 전했다.

고창군은 고창군전통시장인근에 ‘옛도심 어울림센터’를 짓고, 향후 교육·문화·복지 기능이 통합된 복합커뮤니티 거점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한 옛도심지역 주민들에게 일상 속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정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문해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육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etsgochang.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하반기 수강생 접수

## 반려견 특성 이해 AI활용 상품화 강좌 등 마련

부안군은 오는 9월부터 운영되는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하반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전북시민대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학습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지역 평생교육의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지역 정체성 강화와 디지털 역량 향상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사회 변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강좌들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반려견의 특성과 행동 이해, 생활 속 케어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반려견과 건강한 동행’,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생성형 AI를 활용해 지역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상품화하는 실습 중심의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로컬브랜딩’ 강좌도 마련됐다.

또 부안의 로컬 농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개발하고 지역 먹거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안, 맛캐다!’, 지역의 역사와 삶을 지도로 엮어보는 ‘부안 역사문화 고지도 탐하기’는 부안만의 문화와 이야기를 학습으로 풀어가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심리운동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모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이라는 평생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며 차별 없이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를 통해 군민의 역량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나눔과 연대의 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남원시, '세계 1위 기업'과 스마트팜 협약

### 스마트팜 글로벌 기업 '프리바'와 폐열 활용 에너지단지 조성 관련 입지조건 분석 기술지원 논의

남원시는 6일 네덜란드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기업 프리바와 스마트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국내 최초 '소각장 폐열 활용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프리바(Priva)와 남원시 스마트팜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6일 남원시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형, 날씨, 수자원, 일조량, 풍향 및 기반시설 관련 프리바가 축적한 기술력을 이용한 분석사항을 지원하는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네덜란드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 전문기업인 프리바(Priva)는 온실 솔루션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00여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번 방문은 프리바의 국내 공식 파트너 회사 미푸코와의 한국 일정 중 진행된 지자체 방문으로, 지난 4월 남원시 관계자의 네덜란드 본사 방문에서 남원시의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한 메이니 프린스 프리바 회장의 관심으로 이뤄졌다.

현재 남원시는 대산면 일대 60ha 규모의 농생명 산업지구 내 2028년까지 1,26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임대경영(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취·창업), 가공·유통(스마트팜 혁신단지), 실증·기업 유치(스마트 원예단지), 폐열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친환경 에너지타운), 주거(농촌보금자리), 정주여건(농촌협약) 등을 집적화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천후 기지로 조성 중이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프리바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으로 네덜란드와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신설로 삶의 질 향상

### 문화·관광·복지 기능 통합 군민 체감형 행정 본격 추진

완주군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복지 기능을 한층 강화한 '문화관광복지국'을 신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신설된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등 5개 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부서 간 연계를 강화했다.

문화역사과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시설 운영, 지역예술 활성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85억 원을 확보했다.

관광축제과는 대표 축제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며, 머무는 관광지 완주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를 추진하며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대아·동상지구 관광개발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등 완주형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완주군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체육공원과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현대화는 물론,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근대5종 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달빛콘서트'서 미래 관광비전 선포

### 9일 요천 수변 사랑의 광장 개최 EDM·퍼레이드 시민 참여 행사

남원시가 오는 9일 오후 7시, 물축제가 진행중인 요천 수변 사랑의 광장에서 '달빛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달빛정원 개관 100일을 기념하고, 2025 남원 요천 물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대규모 여름밤 축제로 단순한 기념식이나 콘서트를 넘어, 정책 메시지와 시민참여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행사로 기획됐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달빛콘서트는 전통예술공연단 '아퀴'가 콘서트의 서막을 연다. 이어지는 비전 선포식에서는 남원시가 추진해온 관광 전환의 흐름과 향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2부 무대는 가수 코요태, 알리, 영지, 이혁이 출연해 여름밤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연 말미에는 EDM DJ 파티가 이어져 젊은 세대와 가족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한 밤의 페스티벌로 마무리된다.

콘서트와 함께 진행되는 '남원관광 비전선포식'에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의 방향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공유한다.

또한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잇다 행렬 퍼포먼스'는 달빛정원에서 사랑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형 거리 행진으로, 폐자원의 재생이 시민, 문화, 미래를 잇는 남원관광의 상징이자 출발점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떡볶이 페스타' 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 떡볶이 20개·분식류 10개 부스 메뉴 독창성·품질 등 종합 평가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오는 11월 15~16일 이틀간 열리는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축제의 판매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펼쳐지는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축제의 풍미를 더할 판매부스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떡볶이 페스타는 떡볶이를 중심으로 한 전국 최대 규모의 먹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를 테마로, 전국 각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메뉴와 다양한 분식류가 한자리에 모여 방문객들에게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재단은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하고 다채로운 판매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 중 떡볶이 전문 판매부스 20개소와 분식류 판매부스 10개소를 포함해 총 30개소에 대한 운영자를 전국 규모로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재단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참가 조건, 필요 서류 등은 순창발효관광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참가자의 메뉴 구성의 창의성과 독창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되, 음식의 품질과 위생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청아원에서 지난 1~2일 공연한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창극 '소녀 춘향'이 이틀 연속 만석 행진을 기록했다. <사진=남원시>

# 남원시립국악단 창극 '소녀 춘향', 만석 인기

### 이틀 연속 만석 기록 성황 동학정신 접목 재해석 호평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창극 '소녀 춘향'이 이틀 연속 만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남원시립국악단은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 청아원에서 창작 창극 '소녀 춘향'을 공연해 이틀 연속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번 공연은 청아원의 개관을 맞아 무료로 진행됐다. 오는 9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료 공연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남원시립국악단의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음악과 춤, 연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무대·영상·의상 디자인 등 눈을 즐겁게 하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고품격 공연으로 완성됐다는 평을 받았다.

'소녀 춘향'은 동학이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던 1860년대, 소리꾼 김춘향이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을 만나 자신만의 새로운 춘향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평등, 민주, 인권, 자유 등 동학의 정신을 담고 있다.

극본은 소설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허균, 최후의 19일' 등으로 알려진 김탁환 작가가 맡았으며, 남원시립국악단 최용석 예술감독이 연출했다. 또한 김수미 작창, 함현상 작곡, 유선후 움직임 연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당시 불렸던 '칼의 노래'가 국악관현악과 어우러져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최제우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수련하며 추었던 '검무'는 군무로 재구성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피오리움, 개관 100일 기념 무료 개방

### 누적 이용객 6만여명 기록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피오리움(Fiorium)'의 개관 100일을 기념해, 오는 8일 9일 이틀간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무료입장은 개관 후 누적 이용객 6만여 명을 기록한 피오리움이 시민과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 행사다. 특히 9일에는 피오리움 및 달빛정원의 개관식을 포함, 사랑의 광장에서는 2025 남원요천 물축제와 연계한 달빛콘서트가 열린다.

9일 개관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피오리움 실내와 야외 정원에서 열리며, 전시투어, 축하 공연, '잇다 행렬' 퍼포먼스 등이 함께 진행된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시민을 대표하는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일 기념 이벤트는 기존 관광 동선을 넘어, 남원 도심 속 전통과 디지털,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폭염 속 어르신 건강 '맞춤형 돌봄' 총력

완주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노인 2,5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5개 권역 전담 사회복지사 11명과 생활관리사 168명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폭염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폭염 대응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폭염 대비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폭염 수당 지급 및 근무시간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군은 안부 확인 전화 및 방문 상담과 함께, 선풍기·쿨토시·부채·여름 이불 등 폭염 대응 물품 1,340세트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체감온도 완화에 힘쓰고 있다

경로당 508개소와 5개 수행기관(완주지역자활센터, 용진노인복지센터, 예은노인복지센터, 구이노인복지센터, 완주노인복지센터)에는 폭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해 주민 인식을 높였으며,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는 손 선풍기와 모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산단서 점심과 공연 관람 '한낮의 문화식탁'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문화프로그램 '한낮의 문화식탁'이 지난 5일, 완주산업단지에서 성공적으로 첫 운영을 마쳤다.

'한낮의 문화식탁'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동안 도시락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정주유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 회는 완주산단 내 알에프세미 기업 야외 잔디밭에서 재즈밴드 '홍지형', 락밴드 '리프', 어쿠스틱 듀오 '느린날'이 차례로 올라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한낮의 문화식탁'은 향후 완주산단 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해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순창군은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에 대해 총 2억 1,000만원 규모로 부과·고지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 12,945건 1억 4,200만원, △사업소분 1,482건 1억 6,700만원으로, 관내 세대주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5만 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를 받은 뒤,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자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 다만 연면적, 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보이는 전화 ARS(142211) △은행 CD/ATM기,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giro.or.kr) 등 가능하며, 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 완주군, 모바일 앱 활용 '하루 8천보 걷기' 챌린지 시작

완주군이 여름철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자, '모바일 활용 폭염 극복+탄소중립 실천 걷기 챌린지'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15일간 진행되는 8월 걷기 챌린지는 하루 8,000보, 2주 동안 80,000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군민들이 스마트폰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해 일상 속 걷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단순한 걷기에서 나아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1가지 이상을 인증사진으로 함께 제출해야 참여가 인정된다.

탄소중립 인증 예시로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양산(우산) 쓰기 △시원한 쿨 맵시 착용하기 △텀블러 이용해서 물 많이 마시기 △냉방기기 2℃ 올리기 등이 있으며, 실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후 앱에 인증하면 된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걷기 챌린지가 군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체험 중심 맞춤형 상담 '호응'

순창군은 흡연율이 높은 직장인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지난 5일 '찾아가는 직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금연을 희망하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순창군청을 시작으로 행복누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군은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금연 상식 OX 돌림판 퀴즈'를 진행해 자연스럽게 직·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금연 교육 외에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비만 예방,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온기곤 순창보건의료원장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는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 진안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농촌지도자 진안군연합회(회장 박순서)와 한국생활개선 진안군연합회(회장 양희연)는 6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두 단체의 화합을 위한 '2025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장, 김덕재 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행단 생활개선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박순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7명에게도 연합회장 및 군수 표창 등 6부문의 표창장 및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이후 이어진 화합 한마당에서는 지역농업의 중심축으로서 두 단체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도내 최초 '똑똑 알림톡' 시행

### 카카오톡 알림톡 활용 보조사업·민원 처리상황 알림

장수군은 민원인에게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8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민원인에게 보조사업부터 각종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처리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8월 한달 간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보조사업 신청 안내부터 처리는 물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를 마칠 때까지 단계별 상황을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정산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된다.

장수군은 군민들에게 유용한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사업 정보를 신청 단계부터 정산까지 모든 상황을 제공하며 알림톡 수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문자메시지로 동일한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군민들이 보조사업 신청 등을 읍·면 이장회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다 보니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 신청을 못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수군은 민원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구축해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모든 유기한 법정 민원에 대해 △민원접수 △담당자 지정 △보완·보정 요청 및 완료 △처리기간 연장 △처리 완료까지 민원 처리의 모든 단계를 안내한다.

장수군은 내부적으로도 신속하고 누수없는 업무 관리를 위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리기한이 3일 남은 민원에 대해 담당자에게 '민원사전예고' 알림톡을 발송해 민원 처리 기간의 신속도 향상을 유도한다.

관리자가 부서 전체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민원처리 현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관 전체의 민원 관심도도 높여갈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민생회복 쿠폰 사용 독려 캠페인

### 무주 장날, 반딧불시장 일원 소비쿠폰 제도 홍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전북지역 1위에 이름을 올린 무주군이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무주 장날을 맞아 반딧불시장 일원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민들에게 소비쿠폰 제도를 알리고 소비를 독려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장 상인 등 20여 명이 함께 관련 현수막을 들고 안내문을 배포하며 소비쿠폰 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상인 김 모 씨(62세, 무주읍)는 "요즘 마을 방송에서 하루에 몇 번씩 나오고 해서 그런지 소비쿠폰 지급 전보다는 장사가 잘되는 걸 느낀다"라며 "2차 소비 쿠폰까지 해서 올해는 좀 숨통이 틔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가맹점에 완전히 풀리면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캠페인은 물론, 이장회의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도 소비쿠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 취약계층 아동 대상 특별 종합 건강 검진 실시

무주군이 지역 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특별 종합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3주간의 건강검진은 아동들이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아가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진행된다.

검진 항목은 척추측만증을 비롯해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등 기본적인 신체발달 검사는 물론, 구강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결핵검사까지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으로 구성된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하기 쉬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맞춤형 건강관리방안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김완식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드림스타트 친구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는 필수"라며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무주군, '별빛시네마, 불꽃 낙화의 밤' 개최

### 9일·16일 무주안성낙화놀이 11일~15일 야외영화 상영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무주덕유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별빛시네마, 불꽃 낙화의 밤(이하 별밤)"을 즐길 수 있겠다.

"별밤"은 "2025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가 지역의 자연·인문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영화와 전통 놀이, 도서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탐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8월 9일과 16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는 구천동 계곡에서 '무주안성낙화놀이'가 재연되며,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15일 저녁 6시 30분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소집회장에서는 야외 영화소풍을 즐길 수 있다.

11일에는 한국 영화 〈1승〉(2024)이 상영된다. 12일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7), 13일에는 〈리틀 포레스트〉(2018)가 상영되며, 광복절인 15일에는 〈동주〉(2016) 상영과 함께 영화 토크 '윤동주의 별의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날 영화 토크는 역사 크리에이터 이영(구독자 수 30만 유튜브 채널 역사돋보기 운영)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깊이와 재미를 더한 역사 이야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우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장은 "한여름 무더위를 덕유산 깊은 골에서 날려 보시라"며 "구천동 계곡에서 즐기는 낙화놀이의 특별함, 산속에서 즐기는 영화소풍의 재미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2025년 추기 감자 보급종 신청 접수

### 수미 품종 8,000kg 공급 예정

임실군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감자 재배를 지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5년산 추기 감자 보급종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품종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수미'단일 품종으로, 총 8,000kg의 종자가 관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수미 품종은 식감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표 품종으로 꼽힌다.

종자 신청 및 확정된 물량은 지역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량이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공급 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역 관할 농협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기상 여건, 생산 검사, 정선 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가격은 8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으로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수령할 때 해당 농협에 종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휴가철 관광지 특별 계도단속

장수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1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단속 대상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군은 여름철 휴가객이 집중되는 토옥동·지지계곡 등 주요 유원지 인근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에도 나선다.

캠핑, 야영 등으로 갓길이나 주차장 내 장기 주차가 의심되는 차량에는 계도장을 부착하고 차량 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장수군은 이장회보, 현수막,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 부서 및 읍·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와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이다"며 "군민 스스로가 교통질서 확립의 주체가 되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 백운면, 주민과 함께 만든 수국 꽃길

진안군 백운면(면장 이보순)은 올해 행정복지센터 앞 화단에 식재한 수국이 최근 만개하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국 식재는 백운면이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면 소재지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꽃묘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꽃길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백운(白雲)'이라는 지명처럼 순백의 이미지를 지닌 하얀 수국이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에 면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앞 유휴 공간을 정비하고 수국을 식재해 계절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고향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 진안군 출신 출향민 대상 한 달간 체류형 프로그램

진안군이 귀향에 관심 있는 진안군 출신 출향민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고향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향민들의 귀향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삶을 기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에게 진안의 변화된 모습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귀농 귀촌 정보를 얻고,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내달 8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주간이며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진행된다. 귀향에 관심 있는 진안군 출신 출향민 및 그 가족(친척 포함) 5가구를 모집하며 1인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향 탐색, 선배 귀향인 및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영농체험이 있다. 또한 귀산촌 입문 교육과 귀촌·귀향 사례 탐방, 진안고원길 으뜸구간 걷기 등 감성 체험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귀농귀촌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9일 금요일까지 네이버폼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진안고원 치유숲 펜션 1가구 1실이 제공되며,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식사는 점심이 로컬식당 방문을 통해 제공되며, 조식 및 석식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일자리센터-청년센터, 청년 일자리 지원 협약

###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확대

진안군일자리센터는 6일 진안군청년센터 1층 어울림에서 진안청년센터와 관내 청년 대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일자리 부족 및 미스 매칭으로 인한 청년 정주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을 비롯해 군청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지역 청년들의 생각과 지역 일자리 애로사항을 함께 청취하며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 연계 및 필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역 일자리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확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각 프로그램 참여 및 정보 공유 △지역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및 관련 정보 공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등이다.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은 "진안군은 평균 나이 56.5세로 초고령화 지역 중 한 곳으로 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인구가 중요하다"며 "진안군청년센터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 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방위체계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자리이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2025년 을지연습'에 대비한 훈련계획과 공습 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 보고 등 방위 태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이날,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육성발전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으로 제57주년 예비군의날을 맞아 육군참모총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춘성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 대응 능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8월 7일 목요일

## 남원 주천면지사협-의용소방대, 어르신 염색·집수리 봉사활동

남원시 주천면에서는 지난 5일 주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주천면 남여 의용소방대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하여 폭염 중에도 '도란도란 염색방'과 '우리동네 효자손'을 진행했다.

주천면 각 마을을 찾아가 여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염색을, 남성 의용소방대에서는 취약계층에 LED 등 교체, 노후 전기선 정리, 고장이 난 문 경첩 수리 등으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했다. 맞춤형복지팀에서는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

### 총 500여 명에 음식 대접

전주시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센터장 홍미연)가 새샘푸드뱅크(뱅크장 김용진)와 함께 2025년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완산구 고덕산 새샘치유카페에서 동서학동·노송동·완산동·팔복동 거주 취약계층 280여 명과 지역 복지시설 이용자 220여 명 등 총 500여 명에게 삼계탕 음식을 대접했다.

50여 명의 봉사자는 몸보신 재료 500인분을 무려 12시간에 걸친 긴 작업 과정을 통해 손수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 연대감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홍미연 센터장은 "지역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한 끼를 나눌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진 뱅크장은 "전주시 새샘푸드뱅크와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과 맞춤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 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가 새샘푸드뱅크와 함께 2025년 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음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주시행복나눔자원봉사센터>

## 임실군, 말복 맞이 치매안심마을 행복요리교실 운영

임실군이 말복(末伏)을 맞아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치매안심마을인 임실읍 갈마마을과 청웅면 발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요리교실'을 열어 백숙 요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행복요리교실 참여자들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조리 과정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웃음꽃을 피웠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혼자 집에서 하기 힘든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만들고 먹으니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대창, 군산시에 장학금 1천만 원 전달

### 17년째 1억 7천만 원 누적

군산시는 ㈜대창(회장 조시영)이 6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창그룹 조시영 회장은 2009년부터 17년간 매년 군산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사랑과 사회공헌을 실천해 온 대표적인 군산 출신 기업가이다. 그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누적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금 기탁 이외에도 모교인 성산초등학교 및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등에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한 공헌 활동을 펼쳐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시영 회장은 "인재양성 장학금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시에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완주 삼례읍 새마을부녀연합회, 취약계층에 삼계탕 나눔행사

완주군 삼례읍 새마을부녀연합회(회장 이정숙)가 지난 5일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어,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정숙 회장은 "작은 정성과 나눔으로 삼례읍 주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김제 새마을지도자신풍동협의회, 취약계층 가정에 집수리 봉사

김제시는 새마을지도자신풍동협의회(회장 김규영)가 신풍동 평강마을의 취약계층 가정 1곳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6일 협의회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 안을 청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회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썼다.

/김제=온봉기 기자

## 용선중 (재)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취임

관광 분야 전문가인 용선중 씨(62세)가 전주시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출연기관인 (재)전주관광재단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윤동욱 (재)전주관광재단 이사장(전주부시장)은 6일 용선중 초대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용선중 대표이사는 지난 35년간 한국관광공사에 재직하며 한국관광공사 1급 실장과 부산관광공사 실장, ㈜다원투어 부사장을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용 대표이사는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용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 2년이다.

/김영태 기자

## 완주군,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탐험 활동

완주군 이서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금장'에 도전한 청소년 3명이 완주군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탐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달 사전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최근 진행된 정식탐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경험을 선사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만경강에서 고산자연휴양림까지 자전거 종주를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대둔산 트레킹으로 인내심을 길렀다.

또한, 수목원에서 생태 탐사를 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높이고, 야영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함양했다.

박도현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활동이 모두 새롭고 도전적이었으며, 친구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도통동행정복지센터, 무더위 쉼터에 얼음정수기 지원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에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 1일1가구 소통행정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집중돌봄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얼음정수기 설치'로 서비스 지원 했다고 밝혔다.

부영1차아파트 주민은 "이렇게 시원하게 건강한 여름을 날수 있도록 얼음정수기를 설치해 주어 계속되는 폭염에 수분섭취와 건강을 챙길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부안 진서면 기부 천사 홍모씨,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부안군 진서면 운호마을에 거주하는 홍모(70세)씨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2018년에 진서면에 귀촌한 홍씨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였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다.

홍씨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一事一言〉

##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회(3)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만약 유엔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격하된다면, 유엔사 부사령관도 소장이 되는 등 유엔사령부 직급이 한 계급씩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다국적통합사령부 사령관을 3성 장군이 담당하는 사례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유지하되 유엔사령부를 원래 있던 일본으로 재이전, 주일미군사령관이 겸임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유엔사령부는 1950년 7월 도쿄에서 창설되었다가 1957년 7월 용산기지로 이전되었으며, 2018년 6월 현재의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옮겼다. 만약 유엔사령부가 일본으로 재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유엔사령관은 현재 공군 중장이 맡고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이 육군 대장으로 바뀌어 맡게 된다. 확대 재편되는 새 주일미군 사령관은 미 본토에 있는 미 육군 1군단 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하여 육군 대장이 맡으면서 유엔사령관을 겸임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같은 대장임을 감안할 때,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3성 장군 격하, 유엔사의 일본 이전은 유엔사령부의 위상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유엔사령부가 일본으로 이전되면,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전력제공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호스트 국가인 한국도 유엔사 회원국에 참가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다국적통합군사령부에서 나토와 같은 다국적통합 전투사령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유엔사의 일본 이전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은 크게 1969년 닉슨 독트린, 1990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 2003년 해외미군재편계획(GPR) 발표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은 네 번째 맞이하는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 변화이다.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국방전략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닉슨독트린은 한국방위산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EASI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계기가 되었으며, GPR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대외군사전략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이익을 증대하는 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2007년 '안보다이아몬드 구상'과 2013년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해 자국의 전략 속에 미국을 끌어들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추진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하나의 전구' 구상을 미국에게 제안하여 일본의 보통국가 구상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유엔사의 일본 이전 문제는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걸었고 첫 민간인 출신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2019년에 제1단계 기본운영능력(IOC)은 검증을 통과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을 받았다. 2022년 제2단계 완전운용능력(FOC)도 성공적으로 검증작업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요구로 한미 SCM의 '승인'은 유보되었고, 이제 제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작업만 남았다.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략으로 볼 때, 한국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철저한 군사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

전작권 환수가 소프트파워 차원의 자주국방이라면,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는 하드파워 차원의 자주국방이다. 한국은 현무 시리즈, 특히 현무-V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데 이어, 4.5세대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의 양산체계를 구축하였다. 금년 4월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연말까지 군사정찰위성 4기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향후 드론 탑재 경항공모함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미 협의를 통해 원자력 추진 중형잠수함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우수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미국이 최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우리 방산업체는 전통적인 재래식무기 분야의 틈새시장에서 기회를 잡았다. 최근에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미국 방산시장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 변화는 우리 안보에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진정한 자주국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 전북정치 짓밟은 이춘석, 당장 사퇴하라

전북 정치에 또 한 번 치욕스러운 장면이 연출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출신 인사들이 장관과 국회 요직에 대거 중용되며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로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특히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 초기에 여권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4선)이 국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포착돼 논란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다. 해당 분과에 AI 정책을 다루는 TF가 속해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이 거래했던 주식들은 공교롭게 그제 발표된 '국가 AI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다. AI 정책 결정 책임자로서, 1억대의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계획적 차명거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 직무 관련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이가 회기 중 주식에 몰두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와 국민 전체를 우롱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춘석 의원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제명까지 했지만, 그가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며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이상, 이 사태의 책임은 결코 정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직이라는 방패막이를 등에 업고 수사를 받겠다는 심산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도민과 국민을 이중으로 기만하는 것이다. 결코 탈당과 사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전북 정치의 상황은 절박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무책임한 일탈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북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의 잔류는 이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 전북을 위한 봉사의 자세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바퀴가 빠진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 지금 전북 정치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춘석 의원이 그 차량에서 내려야 전북 정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치란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한다. 더욱이 국회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면 누구보다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회피도 아닌 전면적인 책임 이행이다. 이춘석 의원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요, 도리다. 동시에 사법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정치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재열전

**귀신사 석수**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민간신앙조각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시대 - 미상
-소재지-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오늘의 시

## 장마 / 김 사 인

공작산 수타사로
물미나리나 보러 갈까
패랭이꽃 보러갈까
구죽죽 비는 오시는 날
수타사 요사채 아랫묵으로
젖은 발 말리러 갈까

들창 너머 먼 산이나 보러갈까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비 오시는 날
늘어진 물푸레 곁에서 함박꽃이나 한참 보다가
늙은 부처님께 절도 두어 자리 해바치고
심심하면

그래도 심심하면
없는 작은 며느리라도 불러 민화투나 칠까
수타사 공양주한테, 네기럴
누룽지나 한 덩어리 얻어먹으로 갈까
긴 긴 장마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기' 등의 시를 발표한 청년 문사였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한국문학의 현단계'에 평론 '지금 이곳에서의 시'를 발표했다. 1987년 첫 시집 '밤에 쓰는 편지'를 펴냈다. 전주에 정착해 詩作 활동을 하고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 가성비 최고! 최상의 워터파크!

### 오는 10일까지 운영 대형 돔 그늘막·대형 슬라이드

올해 첫 대형 돔 그늘막을 설치하고'가성비 최고, 최상의 워터파크'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이 아쉽게도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아이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 오는 10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아쿠아 페스티벌을 방문하면 더 없는 여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지난달 26일 개막한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을 완비해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다채로워진 물놀이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폭 30m, 길이 50m 규모의 초대형 돔 시설은 폭염과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SNS의 빠른 확산력과 입소문을 탄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은 개막 이후 10일간 6,6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누적 관람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해 축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지난 주말인 8월 2일 토요일에는 하루에만 1,100여 명이 방문해 일일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방문객들은 저렴한 착한 입장료를 내고 50m 길이의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메인풀, 유스풀, 대형풀, 유아 전용 풀 등 다양한 워터존을 즐기며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평상과 캠핑형 쉼터, 파라솔 존, 에어컨 쉼터 등 휴식 공간도 대폭 확충되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지난 주말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자 파라솔 쉼터를 긴급하게 추가 설치하고, 장미터널 구간에 돗자리를 설치가 가능한 휴식 공간을 보강하는 등 관람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세심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주말이 마지막인 아쿠아 페스티벌은 어린이 DJ 파티와 K-POP 댄스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먹거리로는 행사장 내 푸드존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치킨과 피자, 컵라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가 즐비하다.

한편, 군은 아쿠아 페스티벌 기간에 고향사랑기부제와 특별 콜라보를 이뤄 10만원 이상 기부 시 총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임실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는'고향사랑e음'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https://imsillove.kr/)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하루에 1,000여 명이 찾는 등 많은 관람객이 몰리고 있는 만큼, 축제 종료일까지 더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기간도 모두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